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12

DECEMBER 2016
vol.24
MONTHLY MAGAZINE



표지 작품 '미르'

'미르'는 용을 의미하는 순 우리말이다. 또 다른 시작을 위해 한 해를 정리하고, 마음을 가다듬는 12월, 승천하는 용처럼 상실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새로운 꿈을 그릴 수 있는 좋은 때.

캘리그래피스트 이상현 작가

〈해를 품은 달〉 〈타자〉 〈국순당 우국생, 백세주〉 〈교촌치킨BI〉

2015. 한글날 기념 Google 한글로고 제작

2015. 한국브랜드 대상 수상 (한국CPI협회)

사.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부회장, 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상임이사, 한국미술협회 이사,

호를 품은 달이
 되리 더 오래
 너 마음에서
 리지 않느니
 가 되리

정호승님의 겨울강에서 시중에서
 새터 이상현 쓰다

당신은
어떤 공간에서
행복한가요?



Under What
Kind of Spaces
do you feel
Comfortable?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도, 교회 예배당 안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 성스러운 분위기에 자못 경건해진다.

평소 도박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라도 카지노에 들어가면

뜻밖의 행운에 인생을 맡겨보고 싶은 욕망이 끓어오르기도 한다.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고민이 샤워를 하거나 산책을 할 때 극적으로 해소되기도 한다.

도대체 공간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그리 흔들어 놓는 것일까.

이기적이고 각박한 세상이라고 말한다.

현대인의 삶이 이토록 메말라가는 이유는 그러한 삶을 부추기는 공간과 환경 탓일지도 모른다. 회색빛 도시 공간은 정(情), 따뜻함, 나눔, 함께 라는 말과 쉽게 어우러지지 않는다.

때론 예상치 못한 공간에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뜻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온다.

쭉쭉 뻗어 올라간 나무들과 마치 얽은 안개에 휩싸인 듯한
흐릿한 골목의 풍경, 어린 시절 뛰어놀던 그곳과
참 많이 닮은 곳을 발견이라도 하는 순간은
서서히 심장 주변이 따뜻해짐을 경험하기도 한다.

공간은 때론 상호작용이다. 알랭 드 보통은 '행복의 건축'에서 "장소가 달라지면 나쁜 쪽이든 좋은 쪽이든 사람도 달라진다"고 말한다.

인간은 누구나 공간 안에서 생활하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매 순간 공간과 상호작용을 한다. '환경 심리학자'들은 "공원의 벤치와 가로수 그들의 위치에 따라 사람들이 공원에서 휴식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며 "놀이터에서 엄마들이 쉬는 공간을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아이들이 노는 방식도 달라진다"고 얘기한다.

공간과의 상호작용은 인간의 정신장애에도 영향을 미친다. 높은 수준의 위협이 느껴지는 불편한 장소에서 살면 신경계 반응과 내분비계 반응이 폭발해 정신병리를 앓거나 건강이 악화된다고 한다. 아직 이유는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불안과 관련된 정신장애는 도시 환경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불안장애, 우울증, 조현병의 진단율은 시골에 사는 사람보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도시인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애써서 산과 바다, 들, 숲속 공간을 찾아다니는 것도 이런 공간에 대한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공간의 힘

공간은 때론 효율이다. 최근 공간의 중요성을 깨닫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프랭클린 베커와 프리츠 스틸은 저서 '일터와 디자인'에서 "회사의 사무실 공간은 조직에 대한 일종의 신체 언어로서 물리적 작업 환경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그는 "회사가 원하는 신호를 발신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업무 공간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쉽게 말해 열린 업무 공간에서는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업을 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업무 공간의 크기는 사고의 크기와 관련이 깊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천장이 높으면 사고의 폭도 넓어지고 천장이 낮으면 사고의 폭도 좁아진다는 연구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

사회심리학자 론 프리드먼은 그의 저서 '공간의 재발견'에서 "천장을 높이면 창의성이 올라간다"고 강조한다.

업무 공간의
크기가
사고(思考)의
크기

농업
공간에서
전자
공간까지

공간은 때론 역사다.

미야자키 마사카쓰는 '공간의 세계사'에서 역사를 공간의 관점으로 재해석한다.

기원전 5,000년경 건조 지대 큰 강 유역에서 거대한 농업 공간 형성,
2,500년 전 유목민이 이끈 유라시아의 여러 지역 세계 형성,
1,400년 전 이슬람 제국에서 시작된 유목민과 상인에 의한 유라시아의 통합,
500년 전 대항해 시대 이후 대양이 대륙을 잇는 대공간과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근대체제의 형성, 200년 전 유럽을 중심으로 철도와 증기선에 의해 형성된 자본 공간,
20년 전 인터넷을 바탕으로 형성된 전자공간에서 역사가 흘러왔다.

역동적인 세계사는 여섯 번의 공간혁명과 그에 따른 인간의 활동 공간의 확대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사실은 흥미롭다.

공간은
삶을 담아내는
그릇

공간은 때론 행복이다. 누구나 행복한 공간에 머물고 싶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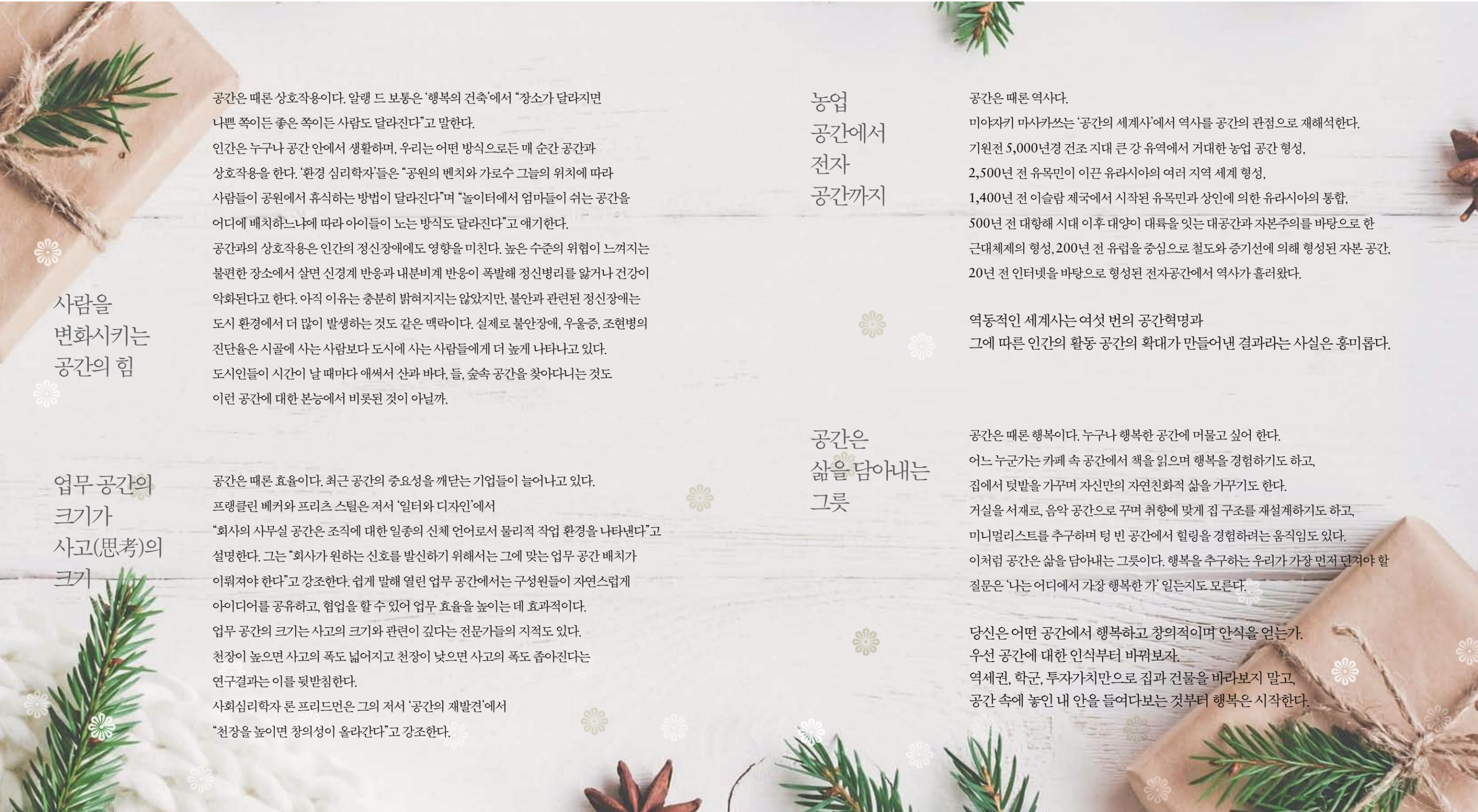
어느 누군가는 카페 속 공간에서 책을 읽으며 행복을 경험하기도 하고, 집에서 텃밭을 가꾸며 자신만의 자연친화적 삶을 가꾸기도 한다.

거실을 서재로, 음악 공간으로 꾸며 취향에 맞게 집 구조를 재설계하기도 하고, 미니멀리스트를 추구하며 텅 빈 공간에서 힐링을 경험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처럼 공간은 삶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가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나는 어디에서 가장 행복한가' 일지도 모른다.

당신은 어떤 공간에서 행복하고 창의적이며 안식을 얻는가. 우선 공간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보자.

역세권, 학군, 투자가치만으로 집과 건물을 바라보지 말고, 공간 속에 놓인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것부터 행복은 시작한다.



CONTENTS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2016년 12월호 vol.24
MONTHLY MAGAZINE. DECEMBER 2016



08 행복을 주는 사람 | 향토문화해설사 이혜성

삶의 무게에 지쳐 정작 내가 뿌리내리고 있는 이곳에 무관심했던 우리. 앞만 바라보며 달려 오다 여유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조금만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펴보라고 권하는 이가 있다. 우리 동네 앞산, 골목, 역사를 사람들과 나누며 삶의 열정에 불을 지피고 있는 그녀는 "행복은 아주 가까이 있다"고 말을 건넌다. 향토문화해설사로 즐거운 인생 2막을 열어가고 있는 이혜성 해설사 얘기다.



14 행복메신저 | 류영지 하나금융투자 공덕동지점 부장

"오늘의 삶도 지나고 나면 이미 과거의 삶에 불과하다"는 말처럼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금융 시장. 손님이 원하는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을 읽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시장의 흐름에 맞춰 손님서비스도 변화해야 한다"는 하나금융투자 공덕동지점 행복파트너 류영지 부장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손님의 니즈를 읽으며 희망을 열어가고 있다.



20 지식 플라자 | 상속세가 없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망자)의 재산 총액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재산이 10억원 이하면 상속세가 없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있는 경우 재산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없다. 그러나 상속세가 없더라도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



36 경제 이슈 | 불확실성이 가득한 2017년 국내외 경제 환경

2017년 세계경제는 신흥국경제의 바다 탈출로 성장률이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압박 강화로 중국의 대미수출 모멘텀이 약화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성장은 2.3%에 그칠 전망이다, 수출 회복에도 한계가 예상된다. 2017년 국내외 경제 환경을 전망해본다.

OPENING



02 **행복을 위한 질문**
당신은 어떤 공간에서 행복한가요?

INTERVIEW



08 **행복을 주는 사람**
열정만 있다면, 언제나 청춘

INFO GRAPHY



12 **한눈에 보는 연금 세상**
노인 복지시설 현황

행복미래설계



14 **행복메신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산관리주치의'

16 **H씨의 행복설계**
안정적인 금융자산 운용으로
현금 파이프라인 구축 중요

20 **지식 플라자-세무**
상속세가 없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

22 **지식 플라자-상품소개**
유언대용신탁(Living Trust)

24 **Do! Dream**
시니어의 돈 되는 도전, 공모전

26 **Anti aging**
'액티브 시니어' 위한
겨울철 건강상식!

28 **Alone, together**
골목골목, 동네책방의 변신

연금이슈포커스



30 **연금 포커스**
은퇴 후 건강보험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경제 TREND



36 **경제 이슈**
불확실성이 가득한
2017년 국내외 경제 환경

40 **부동산 이슈**
2017년 부동산시장,
주택시장 위기론 부각 속
상업용부동산은 각개약진

GLOBAL



44 **지구인 이야기**
올해의
글로벌 시니어 이슈 5

FUTURE



46 **은퇴, 버킷리스트**
가족 모두 행복한
낭만여행, 크루즈 여행



이혜성 • 향토문화해설사

열정만 있다면, 언제나 청춘

삶의 무게에 지쳐 정작 내가 뿌리내리고 있는 이곳에 무관심했던 우리. 앞만 바라보며 달려오다 여유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조금만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펴보라고 권하는 이가 있다. 우리 동네 앞산, 골목, 역사를 사람들과 나누며 삶의 열정에 불을 지피고 있는 그녀는 “행복은 아주 가까이 있다”고 말을 건넨다. 향토문화해설사로 즐거운 인생 2막을 열어가고 있는 이혜성 해설사 얘기다.

“우리 동네에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 아시나요?”

똑 부러지는 말투와 열정적인 화법에 좀체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이혜성 향토문화해설사. 고장에 대한 넘치는 애정과 달변가의 화술로 10년째 중랑구에서 향토문화해설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향토문화해설사는 우리 고장의 역사, 문화재 등에 관해 설명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해요. 옆집에 누가 사는 지조차 모르는 각박한 시대에 우리 고장을 이해하고 알아간다는 건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중랑구에서 20년째 살고 있다. 살게 된 건 20년이지만 향토문화해설사를 시작한 덕에 몇백 년의 중랑구 역사를 훤히 꿰뚫고 있다.

“처음 이곳으로 이사 와 보니 산과 자연환경에 둘러싸인 동네가 너무 좋더라고요. 꽃피고 눈 오는 봉화산을 보고 있으면 설악산, 지리산이 부럽지 않아요.”

동네를 둘러싼 자연환경이 너무 좋아 이곳에 뿌리를 내리며 공부를 시작했고, 우연한 기회에 향토문화해설사의 길에 도전하게 됐다.

“해설사를 하기 전에는 종이접기 강사로 아이들과 소통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역 봉사 활동도 시작했고, 덕분에 동네에 대한 애정이 많이 생겼죠. 어느 날 지역 동장님이 향토문화해설사를 추천해 지원하게 됐는데, 그게 벌써 10년 전의 일이네요.”

지역 역사, 문화 설명하는 향토문화해설사

향토문화해설사는 지역문화재에 관해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관광객들에게 문화재에 관해 설명하는 것과는 달리 주로 지역의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학교에 가서 1시간 정도 수업하고 난 후 아이들과 현장에 나가서 문화재들을 둘러보며 그에 얽힌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알게 되면 동네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이 생기거든요. 아이들도 그래요. 우리 동네 이야기다 보니 관심을 두고 집중도 잘하는 편이에요. 특히 설화 이야기를 좋아하죠.”

향토문화해설사가 되기까지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니었다.

“해설사로 활동하려면 우선 일단 이 지역에 살고 있어야 하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기본교육 12주 과정, 현장 교육 8주, 심화 교육 4주 등 총 24주 교육을 수료해야 해요. 수료 후 현장실습 테스트에서 시험을 통과한 후, 봉사점수를 이수하면 향토문화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해설사는 봉사 개념이 강한 직업이기는 하지만 용돈 벌이도 쓸쓸하고, 보람도 느낄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다.

“해설을 잘 하려면 공부를 해야 해요. 공부하는 과정도 즐겁고, 공부한 만큼 보람도 얻을 수 있어서 더욱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는 해설 의뢰가 들어오면 쉽 없이 관련 내용에 대해 책을 읽고, 자료를 찾아보며 준비를 한다. 특히 초, 중, 고등학교 학생, 일반인들로 나뉘 각각 대상에 맞춰 자료를 찾고, 해설내용을 달리한다. 힘들 법도 한데 그녀는 이러한 활동을 10여 년 동안 반복하고 있다. 고장의 문화재에 대해 몰랐던 것을 알게 된 후 사람들이 고맙다고 인사를 건넬 때는 육체의 피로는 금방 싹 사라진다고. 덕분에 그녀는 주변인들에게 향토문화해설사를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다.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지 못한 주부나 은퇴 후 시간적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 활동하기에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물론 공부도 많이 해야 하지만 집중력과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즐겁게 일하니

행복은 덩으로

“사실 제 꿈은 초등학교 선생이 되는 것이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을 하고 싶었죠. 향토문화해설사는 그런 못다 이룬 제 꿈을 실현할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동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이 젊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평소 꿈꾸던 일이라서 도전했지만 사실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교육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덕분에 독서, 지역 답사를 하며 분주하게 일상을 채운다. 물론 즐거운 분주함이다. 매일 역사에 대해 공부하고 노력하는 과정이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며 즐거워한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이다 보니 활력이 생길 수밖에 없죠.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이 빠지게 되는데 그럴 걱정도 없고 성격도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또 자발적으로 책을 읽고 공부를 하다 보니 삶이 활기가 넘쳐요. 저의 이러한 모습은 가정에 화목을 부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향토문화해설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체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얼마 전에는 성대결절 수술을 받은 그녀이지만 포기란 없다. 체력이 허락하는 데까지 향토문화해설

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하고 싶은 일이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기엔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이 일을 하다보면 즐거워요. 뿌듯함도 많고요. 아무리 그날 체력적으로 힘들었다 라도 집에 돌아오면 기분이 상쾌해져요. 이 일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죠.”



지역 봉사활동으로 삶의 일부 채우다

이 해설사는 해설사 일 이외에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뇌졸중 예방 봉사를 한다. 혈압, 혈당 건강상담도 진행한다. 적십자 도시락 배달 봉사, 복지관 점심 도우미, 노인 대상 발 마사지 봉사 등 다양한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지역 봉사활동으로 지속할 계획이에요. 해설사로서 더 나은 실력을 위한 공부는 당연히 필수고요. 역사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공부해볼 생각입니다.” 특히 향토문화해설사 활동을 하면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책을 만들어보고 싶은 꿈도 갖고 있다.

이 해설사는 행복한 인생 2막에 대해 ‘열정’을 강조한다.

“사람은 누구나 선택한 일에 대해 열정을 느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을 해낼 인내심이 생기지 않을 테니까요.” 그는 열정이 삶의 행복, 에너지를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한다. 지금까지 우린 인생에서 많은 것을 그냥 하기만 한 것이 많다. 그는 뒤늦게 찾은 해설사로 삶의 열정에 불을 지폈다며 마지막으로 한 마디를 건넨다.

“좋아하는 일을 계속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일을 선택했다면 우리 한번 멋지게 해보자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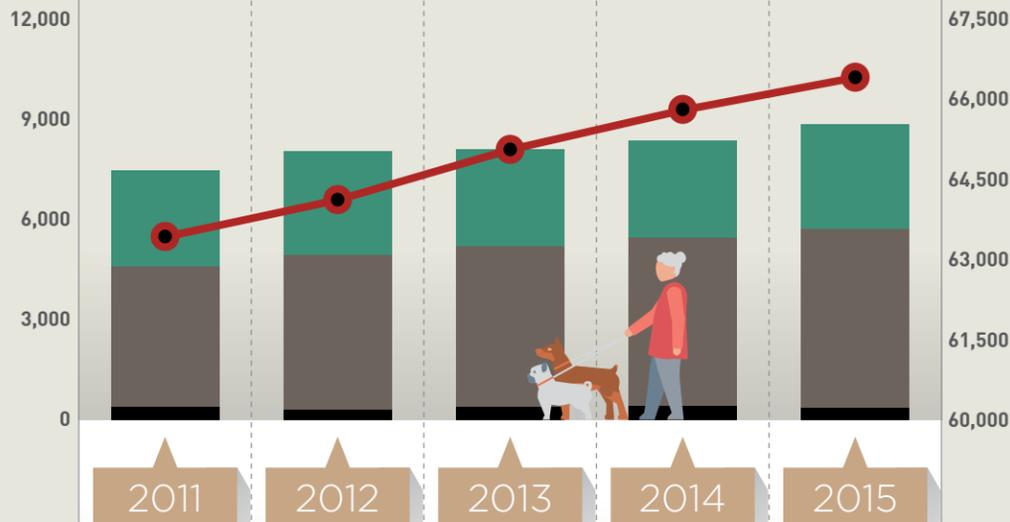
노인 복지시설 현황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고령자 대상 복지시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자들은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가 더 제공되기를 원함

노인복지시설 추이

단위 : 개소
자료 : 2016년 고령자 통계, 통계청

- 주거복지시설
- 의료복지시설
- 재가복지시설
- 여가복지시설(우)



노인여가복지시설

단위 : 개소
자료 : 2016년 고령자 통계, 통계청

- 노인복지관
- 노인교실
- 경로당(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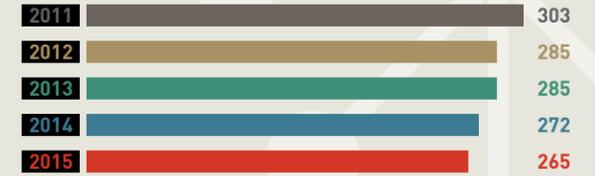


노인주거복지시설

단위 : 개소
자료 : 2016년 고령자 통계, 통계청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고령자들이 원하는 복지서비스

자료 : 2015년 사회조사 결과, 통계청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산관리주치의’

류영지 행복파트너
하나금융투자 공덕동지점 부장

“오늘의 삶도 지나고 가면 이미 과거의 삶에 불과하다”는 말처럼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금융 시장. 손님이 원하는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을 읽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시장의 흐름에 맞춰 손님서비스도 변화해야 한다”는 하나금융투자 공덕동지점 행복파트너 류영지 부장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손님의 니즈를 읽으며 희망을 엮어가고 있다.

류 부장은 1994년 (구)대한투자신탁 입사 후 20년 이상을 영업점에서 경력을 쌓았다. 특히 입사 후 IMF 금융위기, 대우 사태, 서브프라임 등 다양한 시장 상황을 직접 경험하며 쌓은 자산관리 노하우는 좋은 실적을 견인하는 비결이 되고 있다.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변화를 주저하지 않는다. 전 세계 20억 명이 스마트폰으로 बैं킹하는 ‘손안의 은행 시대’에 맞게 손님 서비스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다.

“연령, 성별, 직업 등 다양한 손님별 맞춤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스마트폰 등 인터넷의 발달로 내점손님이 줄어들고 점점 인터넷, 모바일 손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화, SNS 상담 등 원거리 상담으로도 손님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삭막한 사이버 세상 속 교류이지만 그는 손님들과 함께 웃고 우는 공감능력도 탁월하다는 평이다. “상담할 때 무엇보다도 손님들의 얘기를 많이 듣는 편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말하지 못한 사적인 고민이나 인생을 살아가는 얘기를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평소 손님뿐 아니라 동료와의 소통에도 비중을 둔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의 소통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같이 풀어가야 할 다양한 과제나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상호 협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이러한 생각은 업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소통 덕분에 손님들의 니즈에 맞춰 분야별 전문가를 연결시키는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이다.

류 부장은 앞으로 의료분야에 주치의처럼 자산관리주치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손님들과 함께 인생 2막을 준비하는 평생 금융파트너로 성장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행복메신저
에피소드

1997년 대우사태 때가 기억납니다. 66세이신 손님이 가입했던 상품에 손실이 생겼어요. 모두 충격에 빠졌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분의 자녀와 손주들도 저의 고객이 되셨습니다. 최근에는 금융 상품, 퇴직 연금도 가입하셨습니다. 또, 해외로 유학 가는 손주의 외환업무를 KEB하나은행 FB와 협업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복메신저
팁

- 노후준비를 위한 TIP**
- 1.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상품가입을 당장 시작하라.**
1% 초저금리 초고령화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
 - 2. 전 세계 자산별 분산 투자를 하라.**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수익과 안정을 모두 추구해야하므로 다양한 자산 및 금융상품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3.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고 자산이다.**
건강을 잃으면 어떤 자산도 소용이 없다. 평소 건강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안정적인 금융자산 운용으로 현금 파이프라인 구축 중요

H씨는 개인 사업 후 최근 은퇴했다.
가족으로는 가정주부인 부인과 자녀 1명이 있다.
은퇴 전까지 해왔던 개인 사업을 바탕으로
적지 않은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노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투자를 통한
수익금 외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반면,
생활비 및 자녀 교육비와 같은 고정 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향후 어떤 은퇴 준비 전략이 필요할까.



자산은 충분하나 향후 발생할 목돈 지출로 인해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감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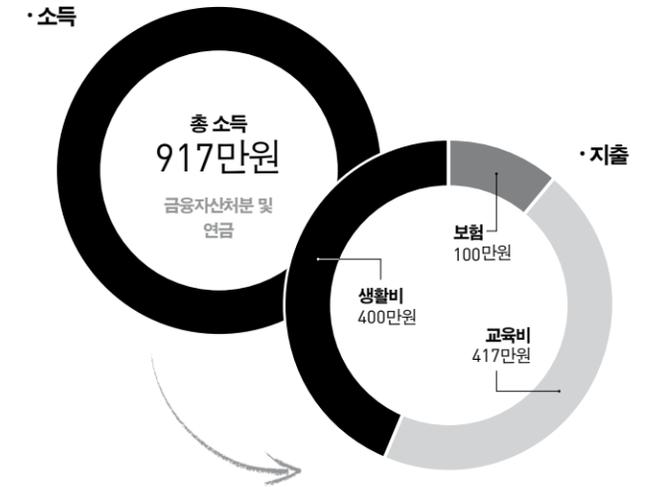
H씨(만 56세)는 3년 전까지 개인 사업을 하였으나 최근 은퇴했다. 가족으로는 가정주부인 부인(54세)과 슬하에 만 21세 자녀 1명이 있으며, 현재 싱가포르에 유학 중이다. H씨 부부는 8억원 상당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자산으로는 주식 3억원, ELS 2억원, 공모주 투자용 단기자금 3억원, 즉시 연금자산 2억원이 있으며, 별도의 부채는 지지 않고 있다.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우선 매월 소득 부문은 정기적인 수입이 없으며, 주식 투자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지출에 활용하고 있다. 매월 지출로는 생활비 400만원, 자녀 교육비 417만원(연간 5,000만원), 보험 100만원 등 총 917만원이 있다.

H씨는 은퇴 전까지 해왔던 개인 사업을 바탕으로 적지 않은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할 경우 노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점에서 투자를 통한 수익금 외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반면, 생활비 및 자녀 교육비와 같은 고정 지출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향후 자녀의 결혼 비용(1억원 예상)까지 고려할 때 향후 어떠한 은퇴 준비 전략이 필요한지 궁금한 상황이다.

현재 재산 및 소득흐름

· 자산	아파트	8.0억 원
	주식	3.0억 원
	ELS	2.0억 원
	단기자금	3.0억 원
	보험(즉시연금)	2.0억 원
· 부채		
· 순자산		18.0억 원



금융자산 운용에 따른 수익금이 향후 유동성을 좌우하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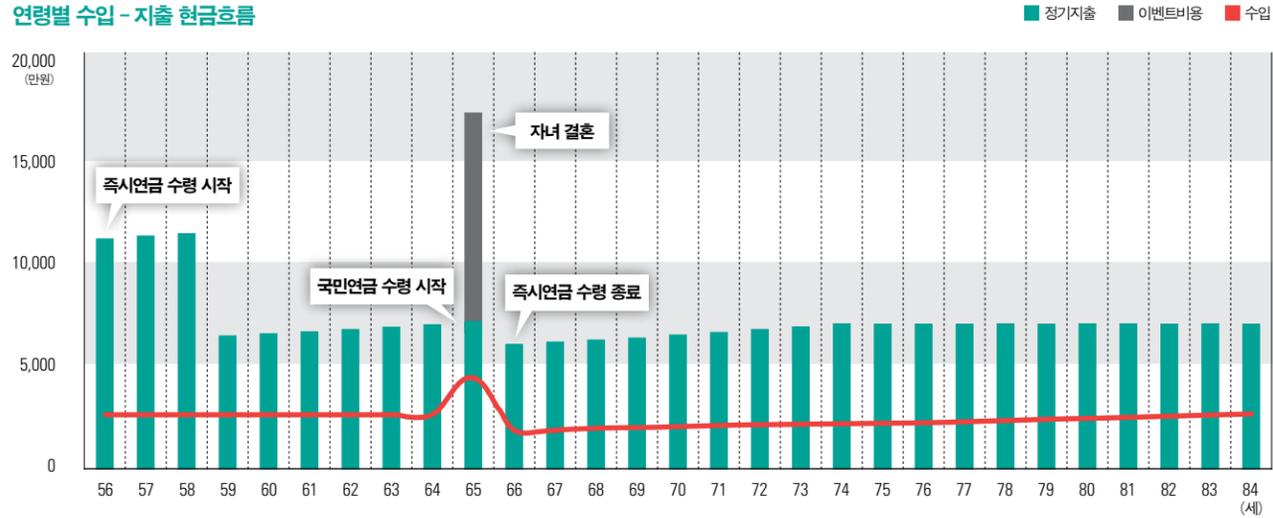
현재 H씨 부부는 생활비로 400만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재 수준의 생활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 현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미래 수입 구조를 살펴보자. 우선 즉시연금자산 2억원을 통해 향후 10년간 월 208만원의 개인연금을 받으며, 만 65세부터는 월 120만원 규모의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그 외에는 별도의 노후 준비를 하지 않았으며, 그동안 개인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연금 형태의 정기적인 수입은 없다. 다음으로 지출 구조를 살펴보면 만 58세까지 자녀 유학에 따른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

며, 이후에는 생활비 및 보험료¹⁾ 위주의 지출 발생이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은퇴 준비 상태 파악을 위해 연령별 수입-지출 현금흐름²⁾을 살펴보면, 전 기간에 걸쳐 자금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자녀 유학시기인 만 58세까지의 기간과 자녀 결혼 시기인 만 65세에 큰 폭의 지출이 발생하며, 정기적인 수입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다. 따라서 현재 지출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투자수익금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보험료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65세까지를 만기로 보고 그 이후에는 납입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2) 물가상승률은 2.0%를 가정하고 수입은 소득에 연금 수급액이 포함되며, 지출은 생활비, 교육비 등이 포함. 한편 고령으로 접어들수록 필요 생활비가 적게 소요됨을 감안하여 75세부터 발생하는 노후생활비는 물가상승분을 추가로 반영하지 않음

연령별 수입-지출 현금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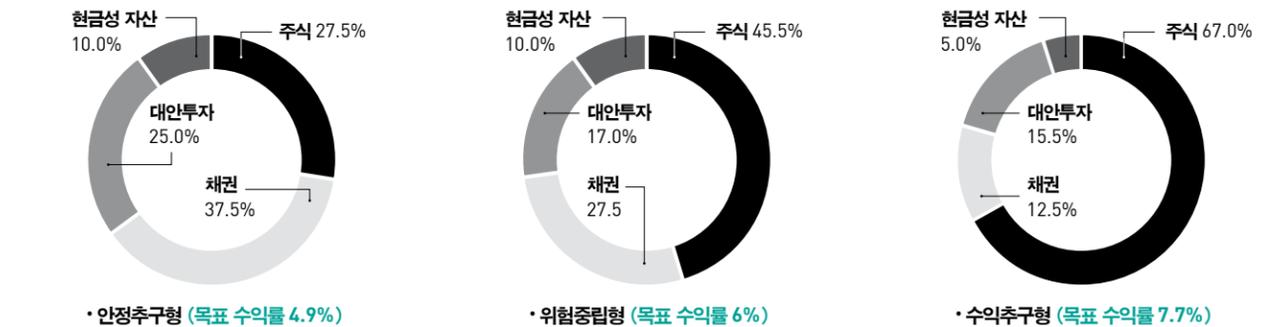
금융자산의 운용에 집중하되

주택연금 등을 통해 현금 흐름을 안정화할 필요

앞서 연령별 수입-지출 현금흐름을 살펴본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H씨 부부의 은퇴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적절한 금융자산의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소득 흐름을 가져가는 것이다. 실물자산 및 금융자산의 규모는 크지만, 적극적인 연금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발생할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지속해서 활용해야 한다. 현재 H씨는 주식, ELS, 단기투자(공모주 투자) 등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 위주의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H씨의 투자 성향은 적극 투자형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하나금융투자에서 제시하고 있는 적극투자형 포트폴리오의 목표수익률은 7.7%이다. 만약 H씨가 동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실물자산을 활용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물자산 규모에 버금가는 금융자산을 축적할 수 있어 이를 향후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으로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 H씨 입장에서 적극 투자형 성향을 지속해서 가져가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금융시장의 속성 상 위험자산 투자에는 그만큼의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물자산을 활용하지 않고도 금융자산만을 이용해 생활할 수 있는 마지노선 수익률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기준으로 볼 때 6.04%의 수익률을 앞으로도 지속할 수 있다면 실물자산 활용 없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 6.04%의 수익률은 위험중립형 포트폴리오의 목표수익률(6%)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적극투자형에 비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낮기 때문에 노후 자금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노후 자금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보다 안정적인 금융자산 운용이 필요하다 생각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실물자산을 활용해보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H씨가 안정 추구형의 목표수익률인 4.9%로 금융자산을 운용한다고 가정하면 약 3.2억원 규모의 금융자산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활용할 수 있다. 실물자산을 현금화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연금의 경우 60세부터 받을 수 있고 본인 및 배우자 사망 후 정산 과정에서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을 경우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자산이 소진되는 시기인 만 75세부터 주택연금을 받으면 매월 약 308만원씩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수령까지 고려하면 매월 생활비보다 연금 수령액이 많아져서 금융자산도 소폭 축적이 되며, 향후에 잔존 가치만큼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결론적으로 노후 자금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극투자형이 아닌 위험중립형 또는 안정 추구형 포트폴리오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택연금 등의 방법을 통해 실물자산을 활용할 수 있으며,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는 금액도 충분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안정 추구형 포트폴리오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투자 성향별 포트폴리오



• 주 : 하나금융투자에서는 '머니TALK'를 통해 매월 투자성향에 따라 '안정 추구형', '위험중립형', '수익 추구형' 포트폴리오를 제시 • 자료 : 하나금융투자, '머니TALK', 201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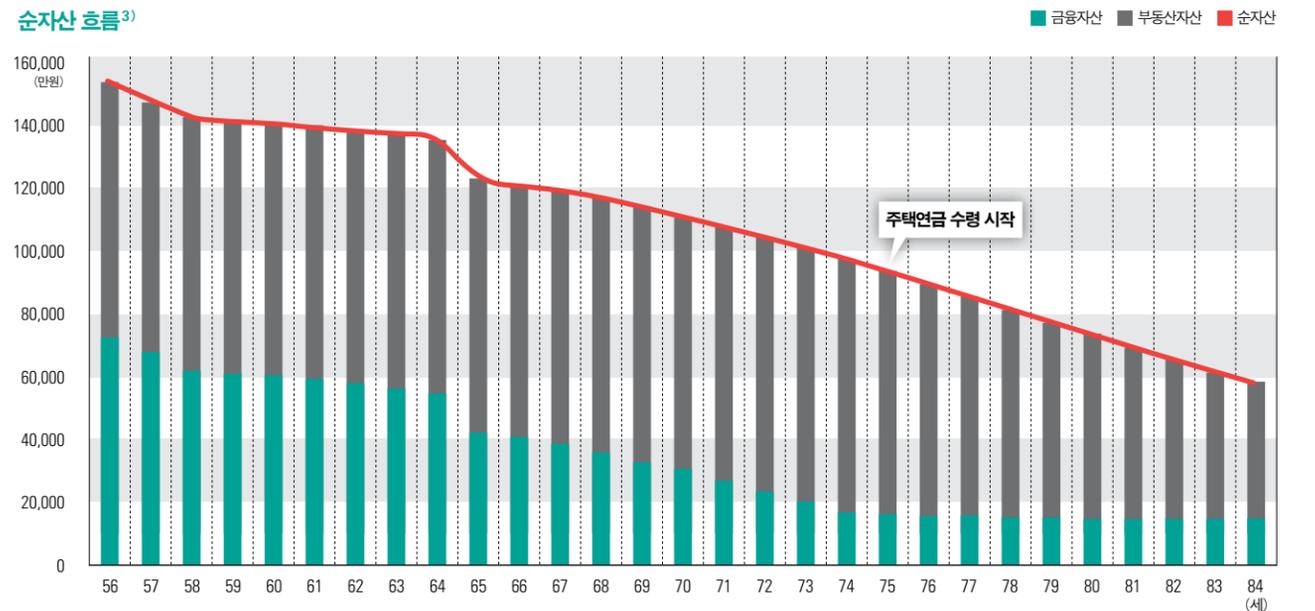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현금 파이프라인 구축이 우선

H씨의 경우 그동안 개인 사업을 영위해오면서 적지 않은 규모의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을 축적해왔다. 하지만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연금과 같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에는 다소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운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만, 노후 자금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와 같이 위험자산 중심의 투자성향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안정 추구형으로 금융자

산을 운용하되 부족분에 대해서는 주택연금 등 실물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중에서도 H씨와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금융시장은 위험을 감수하는 만큼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다. 노후 자금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위험은 줄고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현금 파이프라인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순자산 흐름³⁾



3) 안정 추구형 목표수익률(4.9%)로 운용했을 때 나타나는 순자산 흐름



상속세가 없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망자)의 재산 총액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재산이 10억원 이하면 상속세가 없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있는 경우 재산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없다.

그러나 상속세가 없더라도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망자)의 재산 총액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이다.

상속재산 평가는 어떻게 평가할까?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망자)의 재산 총액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이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재산이 10억원 이하면 상속세가 없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있는 경우 재산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속세가 없더라도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는데, 아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자.

최근 김한국 씨는 상속받은 단독주택을 양도하였다.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1억원 가까이 나온 것을 알고 놀랐는데 왜 그런 것인가? 이유를 알기 위해서 상속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2015년 2월 30일에 고향에 계신 어머님께서 유고하셨다. 아버님은 3년 전에 먼저 유고하셨으며 어머님의 다른 재산이 없고 단독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있었고 기준시가는 2억원이다. 기준시가(일상생활에서 공시지가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데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낮다. 위의 상속주택의 경우에 실제 거래가액은 없지만, 시장에 내놓을 경우 대략 5억원 정도 받을 수 있다.

부동산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시세와는 다른 개념이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보자.

상속재산의 시가는 해당 재산에 대하여 평가 기준일(사망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매매 사실 등이 있는 경우, 둘 이상의 감정가액(평균액)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된다. 즉, 실제 상속재산의 거래가액이 있거나 감정가액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재산의 거래가액 등은 없으나 상속세 신고 시까지 해당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등이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이 시가로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제외하고 상가, 토지, 단독주택 등 이 기간 안에 유사거래가액이 있을 확률이 매우 희박하다. 따라서 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 부동산은 상속인이 감정을 별도로 받지 않는 이상 기준시가로 재산이 평가된다. 이때 평가 기간 이내의 감정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감정평가사의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기준으로 (사망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들어야만 인정이 된다.

상속인인 김한국 씨는 상속세가 없다는 것을 주위에서 듣고 별도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김한국 씨는 어머님의 주택을 기준시가로 취득한 것으로 한다. 왜냐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가 없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재산이 평가되기 때문이다. 상속주택의 양도일은 2016년 6월 이었고 양도가액은 5억원이다. 상속주택을 기준시가로 취득하여 5억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은 3억원이다. 3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대략 1억원 정도 산정된다.

상속인이 감정가액으로 평가를 하여 신고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상속인인 홍길동 씨가 감정가액으로 평가를 하여 신고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속 당시 대략 시세가 5억원 정도 되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을 의뢰했다면 5억원 정도 평가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이 가격이 감정평가사가 평가했을 때 수용할 수 있는 금액 전제하에서이다. 상속세 신고를 했을 경우 상속주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재산평가금액은 5억원이고 홍길동씨는 5억원에 취득한 것이다. 즉, 어머님의 주택을 5억원에 취득을 하여 5억원에 양도를 한 것이다. 상속세 신고를 하든 하지 않든 상속세는 없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차이가 매우 크게 발생한다.

만약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하고 양도하였다면 어떻게 될까? 양도소득세는 없다. 왜냐하면, 감정가액은 없지만 실제 상속주택의 거래가액이 있으므로 이 같은 거래가액이 상속재산의 평가액이고 취득가액이자 양도가액인 것이다. 그러나 급매를 통해 단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재 값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후 향후 양도할 자산이면 감정가액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유언대용신탁(Living Trust)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치매 등으로 판단능력이 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생전에 어떻게 자산을 관리하고, 사후 자녀들끼리 자산 다툼 없이 자산을 상속·배분받게 해 줄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는 고령층들이 최근 늘고 있다. 이에 대응해 금융사들은 2011년 신탁법 개정을 계기로 유언대용신탁 등과 같은 상속형 신탁상품을 출시해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KEB하나은행의 유언대용신탁, 우리은행의 명문가문증여신탁 등의 상품이 제공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생전에 금융사(수탁자)에 자산을 맡기고 자산의 운용수익을 받아 활용하다가 사후에는 사전에 금융사와 계약해 수익자로 지정한 배우자, 자녀 등에게 자산을 상속 및 배분하도록 하는 상속형 신탁상품이다. 따라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등과 같이 별도로 유언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다. 또한, 위탁자와 금융사가 계약 내용을 정하는 관계로 인해 계약서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수익자의 지정, 자산관리의 조건 및 기간, 상속의 집행 조건 및 기간 등을 정할 수 있다. 그 결과 금융사(수탁자)가 관리·처분권에 기하여 위탁자가 정한 대로 신속하게 신탁자산을 이전하므로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수탁 가능 자산으로는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금전채권, 동산, 지상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등이 수탁 가능 하다. 수탁자산 규모는 금융사마다 최저 자산을 정하고 있는데 통상 금전 및 유가증권은 5억원 이상, 부동산은 10억원 이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신탁기간은 통상 20년, 30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별도 약정으로 달리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신탁자산의 운용은 자산별로 계약서에 정한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단독펀드 형태로 이루어지고 실적배당 형태로 원본이 관리된다.

따라서 은퇴한 고령자들 중 조기상속으로 자식들로부터 소외될까 걱정되거나 향후 치매 등 건강문제로 생전 자산관리에 대하여 고민하는 분, 또는 사후 자산상속 문제로 인해 자녀들끼리 다툼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분들은 최근 금융사들이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는 유언대용신탁 등 상속형 신탁상품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유언대용신탁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상속	- 유언장의 필요 없이 유언의 효과가 가능 - 사후 수익자 지정을 통해 재산의 상속이 용이
신탁대상	-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등 부동산관련 권리 - 기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탁재산
수탁금액	- 금전 및 유가증권은 5억원 이상, 부동산은 10억원 이상
신탁기간	- 별도의 약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0, 30년을 신탁기간으로 설정
자산운용	- 단독펀드 형태로 운용되고, 신탁자산별 개별계약에서 정한 위탁자의 운용지시 따름 - 원본 보존 및 이익의 보존을 하지 않는 실적배당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700만원
* 연금저축 불입액과 퇴직연금 불입액을 합산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대상)

400만원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2015년부터 적용)

대폭 확대된 퇴직연금 세제혜택!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연말정산시 최대 115만 5천원* 세액공제 받으세요

* 연간 납입액 700만원, 16.5% 세액공제인 경우
- 13.2% 세액공제 적용시, 최대 92만 4천원 세액공제

세제혜택 포인트

✓ 납입원금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연간 700만원 한도 x $\left[\begin{matrix} 13.2\% \\ 16.5\% \end{matrix} \right]$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 16.5%는 연소득 4000만원 이상(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원 이상)

✓ 퇴직금 및 추가불입한 적립금에 대한 운용 중 과세이연 효과

✓ 퇴직연금전용펀드로 낮은 펀드 수수료로 자산 증대 효과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원리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저축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퇴직연금은 예금저축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에 인하여 예금저축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 다만 이 퇴직연금은 예금저축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인하여 예금저축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저축 대상 금융상품과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본 자료 기재된 집합투자증권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조에 의한 적립금을 납입하는 퇴직연금 전용상품입니다. ※ 과세 기준 및 방법등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16-02004호(2016.02.01 ~ 2016.03.31)

1588-3111
www.hanaw.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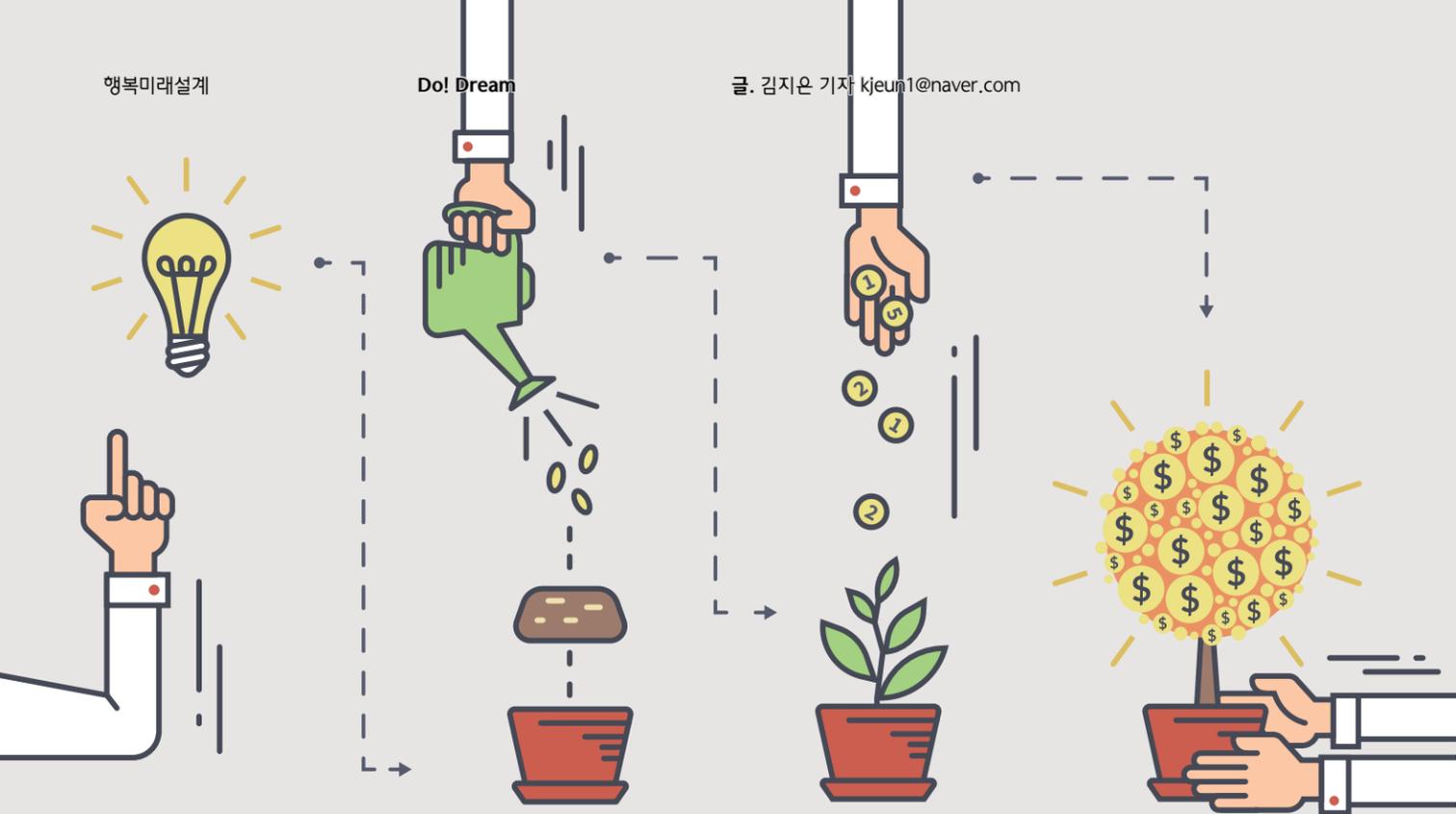
수수료 * 가입 후 1년 경과시 10% 할인 적용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 1억 이하 0.20%	- 1억 이하 0.20%
- 1억 초과 0.175%	- 1억 초과 0.175%

가입조건

* 납입한도 : 연간 1,800만원 한도 / 연금저축, DC가입자 추가부담금 합산 기준 / 모든 금융기관 합산 적용함

- 퇴직연금 DB, DC, 기업형 IRP 가입자
- 퇴직연금에 퇴직급여를 적립한 자



시니어의 돈 되는 도전, 공모전

아이디어, 작품들을 모집해 시상하는 ‘공모전’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 삶의 연륜이 묻어나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응돈도 벌고, 내 안의 열정도 깨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공모전이다. 돈 되는 신나는 도전, 공모전의 모든 것.

50대 A씨. 청소년 시절 우연히 글쓰기 공모에 당선된 후 사연 공모전이나 경품공모의 매력에 푹 빠졌다. 평생 수만 번도 넘는 공모전에 도전했고, 그렇게 받은 경품이나 시상금을 돈으로 환산하면 총 20억원이 넘는다고. 덕분에 세계 70여 개국을 공짜로 다녀오기도 했고, ‘20억 경품공모의 달인’으로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A씨가 강조하는 공모전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바로 정성과 준비다. “공모전 덕에 저는 늘 주변을 자세히 관찰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모두 사연의 소재들이기 때문이죠. 늘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장면을 찍고 그때그때 인상 깊은 상황을 메모하죠. 또 각종 공모전에서 1등한 사례들을 분석하며 성공 비결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공모전이란 아이디어나 작품 등을 모집해 시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정부, 지자체, 기업, 재단, 협회, 대학 등 다양한 곳에서 공모전을 진행한다. 일반인이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분야에는 사연, 글짓기, UCC 영상, 아이디어, 사진, 슬로건 등이 있다. 1년에 평균 1,000~2,000개 이상 정도 진행되는 데 60~70% 정도는 참여 자격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인 경우다. 아이디어나 작품, 글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시니어도 얼마든지 공모전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interview



이동조 | 제1호 공모전코칭 전문가
창의성 강사, 70개 대학 1,000회 창의공모전 특강, ‘대한민국 20대 공모전에 미쳐라’, ‘나도 공모전에 대상 탈거야’, ‘창의방정식의 비밀’ 등 저자.

시니어가 도전할만한 공모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연, 에세이, 글짓기 분야를 추천합니다. 일상의 에피소드, 경험, 수기, 추억, 일상사, 희로애락 등을 이야기로 표현해 공모전에 출품할 수 있습니다. 생활의 각종 지혜를 활용한 분야도 좋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아이디어나 성공사례, 교육 관련 아이디어 제안, 지자체가 제시한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험제안 공모전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식당이나 제품 평가, 리뷰, 엽서 사연, 사진 등 음식점과 상품의 홍보나 마케팅 목적의 글 또는 사진 공모전도 관심을 가져 볼 만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캠코더 등으로 영상을 찍어 편집하는 것에 관심 있다면 UCC 공모전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공모전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어디에서 찾으면 좋을까요?

공모전 정보 포털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모전 포털 정보 사이트 ‘쌍긋’ 등에 방문해 공모전 유형별, 응모자격별, 시상금 규모별로 분류해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포털 사이트에서 ‘공모전’을 검색하면 뉴스나 블로그에서도 현재 진행 중인 공모전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구글에 ‘공모전 정보 수신’ 설치하면 실시간 이메일로 공모전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모전을 잘 준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먼저 관심이 있는 분야, 재능이 있는 분야, 꾸준히 도전할 수 있는 분야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관련 정보를 메모하고, 자료를 수집해 관리하는 것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당 분야의 수상작품을 분석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공모전을 주최하는 곳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공모전 주제를 정확하게 이해한 후 연관성 있는 작품을 제안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공모전 심사기준인 주제 연관성,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전달력, 실용적인 작품, 완성도 등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당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당선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1단계는 일상에서 아이디어와 이야기의 소재, 재료를 세심하게 관찰해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단계는 공모전 정보를 탐색하며 주최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단계는 자신이 정리한 아이디어나 소재와 주최사의 요구를 매칭시켜 봅니다. 주최사 홍보에 도움이 되고, 대중들에게 공감, 감동, 재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4단계는 참신한 컨셉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링 능력을 결합해 완성도 높고 정성스런 작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5단계는 이러한 출품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확률이 높아집니다.

시니어들이 공모전에서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선 자신의 아이디어,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신나는 도전이고 즐거운 시도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엄청난 삶의 활력과 에너지가 되죠. 또 상금은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보통 일반인이 참여하는 공모전의 경우에 대상의 상금은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입니다. 창작이나 글짓기, 사진 공모전은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다양하며, UCC 영상 분야는 평균 대상 수상금이 300만원 정도입니다. 상금은 아니지만, 경품이나 상품권을 제공하는 공모전들도 많습니다.

'액티브 시니어' 위한 겨울철 건강상식!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날씨와 환경변화에 따라 질병이 악화되거나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시니어들은 겨울철 건강관리에 더욱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주로 어떤 질병들을 주의해야 하고 예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낙상, 골절 그 이상의 위험!

낙상은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다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고령층에 잘 생기는데 겨울철에는 비나 눈이 얼어 길이 미끄러워지므로 낙상사고에 더 주의해야 한다. 넘어지는 것이 무슨 대수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니어의 경우 뼈가 부러지거나 회복이 더딘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낙상으로 다쳐서 입원한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은 1년 내 사망한다'는 연구가 뉴잉글랜드의학저널에 실린 바 있다. 골절이 생기면 숨쉬기가 어려워지고, 누워서 생활하느라 운동을 줄이는 탓에 다양한 합병증의 위험도 커지며 면역력도 떨어진다. 따라서 65세 이상이라면 낙상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겨울철 낙상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발가락 힘과 근력을 키워야 한다. 발가락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면 종아리 근육이 저절로 단련되기 때문에 하체 근력도 동시에 강화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비타민D가 부족하면 옆구리가 두드러진다고?

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알려진 비타민D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비타민D가 식욕조절 호르몬인 '렙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지방조직에서 분비되는 렙틴은 뇌에 포만감 신호를 보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식욕조절에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겨울철이면 햇빛이 줄어들면서 비타민D 합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조금 춥더라도 한낮에 20분 이상은 햇빛을 보도록 노력하자. 또한 겨울철에 숙면을 취하려면 일부러라도 낮 시간에 햇빛을 쬐는 것이 좋다. 만약 힘들다면 비타민D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뇌졸중 위험 줄이려면 몸속 근육 키워라

겨울철에는 급격한 온도변화와 함께 혈관 수축이 심해져 뇌졸중을 비롯한 뇌혈관질환에 더 위험한 시기다. 노년층뿐 아니라 요즘에는 20~30대 발병률도 높아진 상태로 콜레스테롤 증가로 인한 비만, 흡연, 고혈압 등과 같은 문제로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뇌 안에 피가 고여 해당 부분이 손상되는 뇌출혈이 발생했을 때 뇌졸중을 일으킨다.

뇌혈관질환을 예방하려면 몸속 숨은 근육을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즉 건강을 위해 유산소운동만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무산소운동도 함께 해야 한다. 특히 근력운동은 뼈와 근육의 노화를 방지하고 근육을 재생시켜 뼈의 골밀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몸속에 숨어 있는 근육을 강화하면 기본 체력 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노화의 속도도 늦출 수 있다. 또한 하루 여덟 잔 정도의 물은 뇌졸중을 예방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뼈가 튼튼해진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칼슘의 균형에 문제가 생긴다. 체내에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나트륨이 소변을 통해 배출되는데 이때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칼슘도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싱겁게 먹는 습관으로 뼈를 튼튼하게 유지해야 관절염도 막을 수 있다. 관절염이 있는 사람의 경우 겨울철에 통증이 더 심해진다고 한다. 무릎관절 질환의 가장 좋은 예방법은 걷는 것이다. 체중이 1kg이 늘면 무릎의 하중은 4kg이 늘어난다고 한다. 따라서 그만큼 연골이 닳는 속도도 빨라질 수밖에 없다. 외부에 나가 자주 걸기가 힘들다면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겨울철 스트레칭 방법 중 하나는 배와 허리를 앞으로 내밀어 척추를 바로 세우고 허리에 5초간 힘껏 힘을 쥐보자. 허리가 쭉 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매일 꾸준히 스트레칭을 하면 척추건강에 도움이 된다.



골목골목, 동네책방의 변신

동네 구석구석에서 저마다의 이야기들을 간직한 동네책방은 오후의 햇살처럼 조용히 삶의 한자리에 스며든다. 독립 출판물, 인문학, 그림책, 시, 여행 등 주인장이 선별해 추천하는 책을 벗 삼고, 커피, 맥주, 강연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오감을 채운다. 낭만 가득한 동네 책방으로 향하자.

평일 저녁 8시. 상암동 작은 서점 '북바이북'에 사람들이 북적인다. 지하에 마련된 강연장은 벌써 강연을 들으러 온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이날은 '쓰기의 말들'의 저자 은유 작가의 강연이 있는 날. 때론 커피 한 잔, 때론 맥주 한 잔을 한 손에 들고 마치 친구와 수다를 나누듯 작가와 두런두런 글쓰기 이야기, 삶 이야기, 스토리를 나누며 이화란 씨는 "평소 좋아하는 작가의 강연이 있어 친구와 약속 장소를 이곳으로 잡았다"며 "기다리는 동안 사고 싶었던 책도 사고, 강연도 듣고, 친구와 커피도 마실 수 있어 자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루가 멀게 책방 간판이 내려지고 어느 지역은 서점 자체가 종적을 감추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동네 책방, 동네 서점은 그들의 개성을 찾아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가수 요조는 서울 종로구 원서동 언덕배기에 '무사'라는 이름의 작은 책

방을 열었다. 책 300권을 갖춘 이곳은 독립출판물과 함께 구하기 어려운 책들, 오래된 책들을 판다. 무엇보다도 책을 읽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해외에서도 동네책방은 인기다. 프랑스에서 서점상은 일반 상인들과 위상이 다르다. 문화상품으로 구분되는 책과 다른 일반 상품이 구별되는 것처럼, 서점상은 단순한 상인이 아닌 문화 전달과 공유의 화신으로 인정되고 있다. 프랑스에도 동네마다 작은 서점이 속속 문을 열고 있다. 많은 프랑스인에게 서점은 휴식, 문화, 만남의 공간으로 인지되고 있다. 프랑스인이 서점에 머무는 시간은 1회 평균 26분으로, 아이를 서점에 풀어놓고 장을 보러 가는 일도 있다고 한다. 서점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일부는 "서점이 없는 도시는 정체된 도시"라고 말할 정도로 서점에찬을 늘어놓기도 한다.



책맥하실래요? 북바이북

상암동에 위치한 맥주를 마시며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북바이북이다. 자매가 함께 2호점까지 내면서 1호점은 소설점으로, 2호점은 비소설을 다루는 본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외진 곳이지만 손님들이 끊이지 않는다. 투명 비닐로 쌓여져 있는 책마다 '책꼬리'가 달려있다. 책꼬리란 책을 읽은 손님들이 직접 손 글씨로 책에 대한 이야기나 추천 이유를 적은 '쪽 글'을 말한다. 서점에 비치된 '독서 카드'는 완독한 책 이름을 적어둘 수 있게 해줬다. 작가, 캘리그래피, 창업, 미니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과 저자 강연회도 진행한다.



대전 최초의 독립 출판 책방, 도어북스

독립 출판은 기존의 출판 시스템과는 다르게 소규모로 발행하는 자가 출판으로 글쓴이부터 제작, 유통까지 저자가 도맡는 형태다. 이러한 독립 출판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책방을 독립 서점이라고 한다. 주로 서울에 집중되어 있던 독립서점이 대전으로 확대됐다. 대전에 처음으로 문을 연 독립서점은 '도어북스'. 이곳에서는 책뿐 아니라 소품 판매와 강연도 함께 진행하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



여행 전문 책방, 일단멈춤

일단멈춤은 여행에 대한 책들로 공간이 채워져 있다. 이 공간은 '당장 여행을 떠나자'라기보다는 '잠시 내려놓음, 일단멈춤'을 권하는 듯하다. 영리동 오래된 주택 길에 숨어든 듯 자리한 책방 일단멈춤은 출판사와 잡지사 에디터를 지낸 주인장이 여행과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인 여행책방을 선택했다고 한다. 책방에는 여행 독립출판물이 주를 이룬다. 대형 서점에서는 볼 수 없는 책들을 만날 수 있도록 책방을 꾸며왔다. 책 판매 외에 전시도 이뤄진다.



58년의 역사, 속초 동아서점

개점 1956년. 3대째 내려오는 속초 동아서점은 매달 판매량을 집계해 동아서점만의 베스트셀러 목록을 공개한다. 책 진열에도 신경을 썼다. 베스트셀러 중심이 아닌 '달', '여행', '타인의 취향', '역사 교과서가 하나일 수 없는 이유' 등 테마를 정해 관련 책을 소개한다. 직접 손 글씨로 쓴 책 홍보 문구도 개성을 더한다. 매달 독서모임, 강연회도 열며 속초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서울시 책방 지도 서울시에서는 '2016 서울시 책방 지도'를 제공한다. 서울시내 370여 개 책방과 80여 개 헌책방 위치와 주소, 전화번호를 담고 있다. 책방 정보는 지도에 있는 QR코드를 이용, '동네 책방 찾기'(lib.seoul.go.kr/bookstore/main)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발행처인 서울도서관, 구청, 공공도서관, 관광안내소 등에 비치하여 무료로 배포한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늘어난 수명, 은퇴 시기 단축, 빈약한 은퇴수입 등 부실한 노후대책으로 앞길도 막막하다.

은퇴를 하자마자 증가하는 건강보험료는 더욱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은퇴 후 폭탄처럼 다가오는 건강보험료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법에 대해 살펴보자.



평균 수명 연장 및 은퇴 시기 단축과 함께 부실한 노후대책 등으로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퇴직 후 증가하는 건강보험료가 은퇴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월 한 달간 실직 또는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12만4,978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변동 내역을 조사한 결과 대상자 중 61%가 보험료가 증가하였고, 대상자 평균 건강보험료는 5만5,022원에서 9만2,669원으로 1.7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건강보험료가 증가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건강보험료는 4만4,000원에서 12만9,000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료 납부방식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은퇴 후 건강보험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은퇴 후 소득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우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건강보험료 납부방식은 가입자 유형에 따라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교직원, 그리고 이들의 피부양자로 구성되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2015년 6월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 5,046만명 중 직장가입자가 3,608만명, 지역가입자가 1,438만명인 것으로 집계된다.

먼저 직장가입자의 경우 그 해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인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된다. 2016년 기준으로 보수월액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6.12%이며, 이 중 절반은 회사가, 나머지 절반은 가입자가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소득, 재산(전월세 및 자동차 포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건강보험료가 산정된다. 즉, 각 보험료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 당 금액(179.6원)을 곱하여 보험료가 산정되고, 경감 및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해 최종적으로 실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산출된다.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건강보험료 경감제도의 적용대상은 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 55세 이상 65세 미만 여자로서 구성된 단독 세대와 그 외 한 부모 가족, 장애인 등이며, 소득, 재산, 장애등급에 따라 10~30% 정도의 보험료 경감률이 당사자 신청 없이도 자동 적용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부과 기준	보수월액 보험료 -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 - 건강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율 ('16년 기준 6.12%) ※ 보수월액이란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하한선 28만원, 상한선 7,810만원)	- 연소득 500만원 이하 : 부과요소별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점수 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 점수 당 금액('16년 기준 179.6원) - 연소득 500만원 초과 : 부과요소별 (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점수 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 점수 당 금액 ('16년 기준 179.6원)
	소득월액 보험료 -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부과 - 건강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율 ('16년 기준 6.12%)×50/100 ※ 소득월액은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다만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은 20% 적용 (상한선 7,810만원)	※ 소득은 연 500만원 초과자에 대해 75등급으로 세분, 부동산 및 전월세를 포함한 재산은 50등급으로 세분, 자동차는 7등급,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은 가입자의 성별, 연령, 재산, 자동차 연간 세액 등을 고려해 30등급 세분 ※ 소득의 범위 :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연간소득금액의 100% 적용 / 근로 및 연금 소득은 연간소득금액의 20% 적용
납부자	- 보수월액 보험료는 사용자 50%, 근로자 50% - 소득월액 보험료는 근로자 100%	지역 가입자 100%

은퇴 후 건강보험료가 증가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근거해 볼 때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요소에서 차이 때문이다.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퇴직하고 나면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어 종합소득과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 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퇴 후 소득이 거의 없음에도 주택과 자동차 보유만으로도 과거 대비 높은 수준의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다.

둘째,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 유무이다. 직장에 다닐 때에는 건강보험료 중 절반을 회사가 부담해 주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직장에서 부담해주던 부분이 사라지고 건강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퇴직 후 소득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 액수가 커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은퇴로 인한 신분변동으로 지역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퇴직자들이 높은 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임의계속가입제도, 자녀의 피부양자 전환, 지역보험료 조정 및 경감제도 활용 등 다양한 건강보험료 절약방법과 함께 지역 건강보험료 산출 시 고려되는 자신의 소득, 전월세 및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 생활 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점검하고 은퇴 후 생활에 맞게 이를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첫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요소에서 차이 때문이다. 둘째,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 유무이다. 은퇴 후 생활에 맞게 이를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임의계속가입 신청

은퇴 후 건강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은 직장을 다시 구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직장을 다시 가지기는 쉽지 않으며, 이 경우 차선책으로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만든 제도로서 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할 경우 퇴직 전에 납부하던 보험료 수준으로 2년간 보험료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여 일단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어 놓고 이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피부양자 전환, 재산 조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는 '퇴직 월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의 보수월액(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보수월액)의 평균×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소득월액 보험료'로 산정되며, 신청 후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퇴직 당시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였다가 퇴직한 자로 신청자격이 제한되며, 재취업 후 1년이 되기 전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퇴직 직전 직장에서 1년을 근무하지 않아 임의계속가입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에서도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자격이 소멸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자녀의 피부양자로 전환

자녀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본인이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녀의 피부양자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4,000만원 이하, 근로소득과 기

타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4,000만원 이하, 연금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와 함께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 9억원 이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부모와 가입자가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부모와 동거하는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피부양자 자격요건 상 금융소득과 기타소득 각각이 4,000만원 이하, 연금소득이 2,000만원 이하를 유지하면 자격을 갖출 수 있으므로, 해당 소득을 적절히 분배하는 것도 건강보험료 절약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지역보험료
조정제도 활용**

일반적으로 소득이 줄어들면 건강보험료도 줄어들게 된다. 전년도 신고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그해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이를 추후 정산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추후 정산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는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 상황까지 모두 보험료에 반영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변동사항을 바로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경우 실제 소득 및 재산 감소 시점과 이것이 보험료에 반영되는 기간까지 6개월~1년 정도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지역보험료 조정신청'을 한다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발생소득을 201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검증한 후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소득 및 재산 감소가 보험료에 반영되는 데 시차가 존재한다. 2016년 5월에 신고한 2015년 소득이 2014년 대비 줄어든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및 재산 감소분이 보험료에 반영되는 것을 기다리기보다 지역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2016년 11월 이전에 이를 보험료에 반영할 수 있게 되어 신청하지 않을 경우와 비교 시 5개월 정도 더 낮은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다.

지역 건강보험료 조정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분	적용시기
소득감소 및 폐(휴)업, 퇴직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 차기 연계소득이 감소했을 경우 : 7월 중 서류 제출 시 6월부터 조정, 8월 이후 서류 제출 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 (단, 1일에 제출한 경우 당월부터 조정) - 폐(휴)업, 퇴직한 경우 : 원인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일인 경우 그달부터)
재산 및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원인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달부터)
전월세 보증금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무상거주 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달부터)

더 행복한 생활을 위한 하나의 생각, 하나멤버스

하나멤버스와 함께하면 당신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가입하면 혜택이 쏟아지는 행복한 멤버십과 만나보세요.



HANA MEMBERS 하나멤버스

하나금융그룹 6개 관계사의 통합 멤버십 서비스. 저축부터 보험 가입, 카드 사용, 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금융거래를 통해 쌓인 하나머니와 제휴사 포인트를 합산하여 언제 어디서든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금융 멤버십 서비스입니다. 하나멤버스 회원이 되어 다양한 일상 속 행복을 누리보세요.

하나머니란?

연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하나멤버스의 통합 멤버십 포인트입니다. 하나멤버스 가입 고객은 누구나 하나금융그룹금융 거래 및 일반 가맹점에서 하나머니를 적립하고 연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로 적립해 편리하게 사용한다!
상상하는 모든 게 가능한 **하나머니**

- 연금처럼 ATM출금도 자유롭게!
- 내 계좌로 입금도 안전하게!
- '보내요'와 '주세요'로 친구와 주고받기도 다정하게!
- 가맹점에서 바코드 결제로 간편하게!
- 부족하면 내 계좌에서 충전도 빠르게!
- 다른 포인트와 교환하여 한꺼번에!
- 교통카드 충전도 손쉽게!

Hana Money 1 Click



어디서든
(어디서 써야 하는지 몰라도)
그냥 결제만 하고
(하나머니를 사용한다는 말 없이)
Cashier가 일반 결제 처리만 하면 하나멤버스 앱이 Push로 알려주니까

모바일 Push 팝업에서 하나머니 **사용하기** 클릭!

'사용하기' 탭 클릭하면 하나머니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하나머니 잔액 천원 이상 & 매출금액의 20%까지 하나머니 사용이 가능합니다.

쉽고 빠르게 하나멤버스에 가입하세요

모바일 [하나멤버스] 앱 다운로드 > 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가입 > 하나멤버스 회원 가입 완료!

www.hanamembership.com

하나멤버스 를 검색해 보세요

Google play | App Store



불확실성이 가득한 2017년 국내외 경제 환경

2017년 세계경제는 신흥국경제의 바닥 탈출로 성장률이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그러나 포퓰리즘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국내 성장은 2.3%에 그칠 전망이며, 수출 회복에도 한계가 예상된다. 2017년 국내외 경제 환경을 전망해본다.

2017년 세계경제는 신흥국경제의 바닥 탈출로 성장률이 소폭 상승할 전망

2017년 세계경제는 선진국 경제가 경기부양 노력 제한 등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 하락 완화와 중국의 연착륙 등으로 신흥국 상황이 개선되면서 성장률이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선진국 중에서는 민간부문이 경제를 견인 중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확대가 기대되는 미국, 신흥국 중에서는 브라질, 러시아 등 바닥 탈출에 성공한 원자재 수출국의 성장세가 예상된다. 다만 전반적인 수요 부진과 높은 부채부담 등으로 기업투자 부진이 장기화 되고, 미국과 유로존의 포퓰리즘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세계 교역의 회복이 제한됨에 따라 글로벌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압박 강화로 중국의 대미수출 모멘텀이 약화될 우려

미국경제는 고용시장 개선 및 주택투자 호조 등으로 인한 개인소비 확대와 재고조정 및 대선 관련 불확실성 소멸 등으로 인한 기업생산 회복 등으로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세가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재정확대를 통한 확장적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국경제가 애초 예상보다 과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원자재 가격 반등과 시간당임금 상승에 재정적자 확대요인이 가세하면서 소비자물가가 2%대에 진입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기초하여 보호주의적 통상정책과 차별적 이민정책, 세출삭감 없는 대규모 감세 등을 내세운 트럼프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인프라 투자 및 감세, 보호무역 강화 등에 힘입은 긍정적인 효과가 단기적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공약대로 시행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동맹국과의 관계악화, 글로벌 교역 위축, 재정수지 악화 및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글로벌 PMI 및 세계 산업생산 추이



자료 : Bloomberg

중국경제는 연초 금융 불안 이후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금융완화와 공공 인프라 투자, 부동산 경기 부양 등에 힘입어 성장 모멘텀이 강화되면서 경착륙 우려가 완화되었다. 그러나 수출과 투자 등 제조업 부문이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며, 민간소비와 서비스업 역시 정체기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경제는 인프라 투자 등 정책당국의 경기부양과 수출개선 등으로 6%대 성장률 달성에 성공할 전망이다. 하지만, 추가적인 금융완화 및 부동산 경기 부양에는 신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재정여건 악화, 지방정부 및 국유기업의 과도한 레버리징, 주요산업의 과잉설비 등 중장기 리스크 요인도 여전히 상황이며, 미(美)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율 상향조정, 환율조작국 지정 등 대중 무역압박이 강화될 경우 중국의 수출 모멘텀이 약화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유로존 경제는 저

유가에 힘입은 가계 구매력 개선과 각국 정부 및 ECB의 공격적인 경기부양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브렉시트(Brexit) 관련 불확실성과 역내 금융시스템 불안 등으로 인해 기업 투자와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추가 경기부양의 한계 및 부작용 부각, 정치·사회적 불안 등으로 성장여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영국의 EU탈퇴와 시리아 내전 등으로 인한 난민유입, 계속되는 IS테러 등으로 민족주의가 확산되고 극우정권이 세력을 확대하면서 정치적·사회적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IS테러가 난민 때문이라는 대중정서가 확산되면서 EU 내 통행의 자유가 제한되는 등 EU의 개방성이 훼손되고 있는 점도 리스크 요인이다.

일본경제는 엔고여파로 인한 수출 및 투자부진과 소비모멘텀 약화 등으로 2017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둔화될 전망이다. BOJ의 마이너스 금리 및 장기금리 목표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2% 목표달성이 어려워지면서 정책당국(아베노믹스)에 대한 신뢰도 하락 중이다. 경기부양을 위한 아베 행정부의 의지를 감안할 때 인플레이션율이 2%를 상회할 때까지 재정 및 금융완화 정책이 반복될 전망이지만 정책수단의 고갈과 무리한 재정 및 금융완화의 부작용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헬리콥터 머니' 등 더욱 급진적인 금융완화 정책을 전격적으로 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인 상황이다.

투자회복 제한과 소비부진 장기화로 2.3% 성장에 그칠 전망

2017년 국내경제는 수출단가 회복과 미국경기 개선에 힘입은 수출 증가세 전환에도 불구하고 산업 구조조정과 정치 불안 등으로 인한 투자회복 제한과 소비부진 장기화 등으로 뚜렷한 성장 모멘텀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17년 성장률은 내수부문의 성장건인력 부재와 성장률 이월 효과 축소 등으로 올해의 2.7%보다 낮은 2.3%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부문의 부진으로 정부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책대보다는 재정 건전성 강화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17년 정부예산(400.7조 원)은 '16년(추경포함 398.6조원)에 비해 0.5% 증가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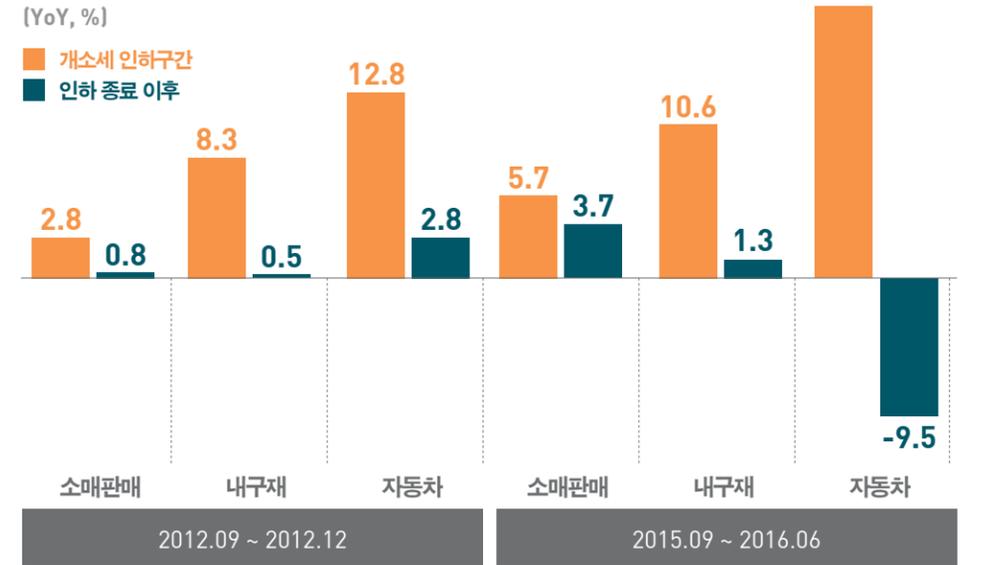
민간소비는 김영란법 시행과 소비활성화 정책효과 약화, 구조조정 본격화와 정치적 혼란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과 고용시장 악화, 주택경기 둔화, 유가상승으로 인한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소비성향 하락, 빠른 고령화, 가계부채 부담 등의 구조적인 요인과 정년연장과 구조조정에 따른 청년 실업문제, 전세가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 등으로 민간소비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017년은 소비여력이 높은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는 첫 해로 소비활력이 저하할 우려가 높다.

설비투자는 수출회복에 따른 투자여건 개선, 노후설비 교체, 전기차·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투자에 힘입어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그러나 평균 공장가동률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에 머무는 가운데,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철강·화학 등 주력산업의 공급과잉 및 구조조정 압력 등으로 설비투자 회복에 한계가 예상된다.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한 기업이 설비확충보다 건전성 개선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투자확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건설투자는 2015년 크게 늘어난 분양물량과 저금리 등으로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상승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주택 공급과잉 우려, SOC 예산축소 등으로 증가율이 낮은 수준으로 둔

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GDP에 대한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가 '16년 1.5%p에서 '17년 0.5%p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정부가 가계부채 급증과 주택공급 과잉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집단대출 등 주택금융 규제를 강화하고 주택공급을 축소함에 따라 건설투자 둔화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개소세 인하 종료 전후 소매판매 비교



주 : 개소세 인하구간과 인하종료 이후 1년의 증가율을 비교. 단 2016년 7~9월 자료임 | 자료 : 통계청

주력 수출품목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수출의 회복에 한계가 예상

수출은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회복으로 인한 수출단가 개선 및 미국 수입수요 확대 등으로 3년 만에 감소세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비관세 장벽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기업투자 부진, 글로벌 밸류 체인 변화 등으로 세계교역의 회복이 제한되는 점과 중국의 성장전략 변화, 주력 수출품목 공급과잉 등의 구조적인 변화로 수출의 적극적인 경기건인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원자재 가격 회복 등으로 수출보다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여행수지 적자가 확대되면서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80억 달러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유가에 따른 물가하락 압력이 소멸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 중반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Output Gap이 마이너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기업 구조조정으로 임금상승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흐름은 매우 완만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전기료 개편(인하)과 전세가가 상승세 둔화 등도 소비자물가 상승을 억제할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에 이은 '아웃사이더'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정치 리스크가 전면화 된 가운데, 국내에서도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확실한 것은 내년도 국내외 경제 환경이 매우 불확실하다는 것뿐이다. 일상화되고 있는 불확실성에 익숙해져야 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2017년 부동산시장, 주택시장 위기론 부각 속 상업용부동산은 각개약진

최근 공급과잉 가능성, 가계부채 문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금리상승은 주택 시장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7년 주택시장에서는 지역별 차별화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금리인상 일정, 국내 거시경제 동향과 가계부채 대응방향 등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는 연말과 내년 초까지는 금리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급과잉, 금리상승, 가계부채 등 주택시장 리스크 요인 부각

지난 20년을 돌이켜 보면 주택시장은 4~5년 주기로 가격상승률이 정점을 찍는 주기를 반복해왔다. 최근의 정점은 2002년, 2006년, 2011년, 2015년으로, 2016년에는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기에 접어들었다. 특히 2015년부터 주택 인허가와 아파트 분양이 급증하면서 공급과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2017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입주가 크게 늘어나는데 입주자 중 유주택자가 기존에 보유했던 물건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시장공급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가계부채 문제가 국내경제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에서 집단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문턱을 높이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금리가 크게 오르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일정, 국내 거시경제 여건 등에 따라 금리의 변화방향과 속도가 영향을 받겠지만, 그동안 이어졌던 저금리 기조가 바뀔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주택 수요를 냉각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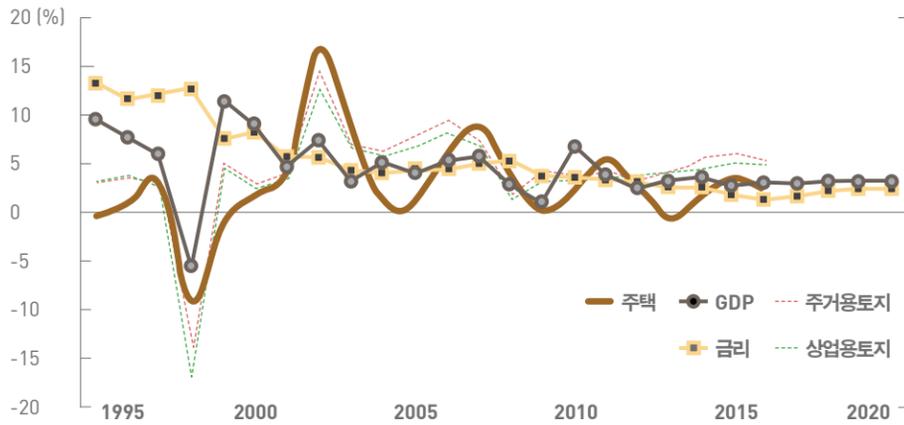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물론, 수도권 내에서도 차별화 심화 예상

2017년 주택시장에서는 지역별 차별화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상승세 속에, 지방광역시는 보합세, 기타 시도지역은 하락세로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시장이 불안할수록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지게 마련인데, 수도권의 경우 전세가구 비중이 높아 실수요기반이 두텁다. 지방광역시는 수도권이나 기타 시도지역에 비해 공급부담이 크지 않고 수도권만큼은 아니지만, 실수요 기반이 비교적 견고하다. 반면 기타 시도지역은 수요층이 넓지만 입주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수급불균형이 더욱 심화된다는 점이 부담이다.

수도권 내에서도 차별화가 심해질 수 있다. 서울시를 비롯, 서울시와 연계성이 높은 인근 지역 시장은 비교적 양호한 상황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반면, 입주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경기도 외곽지역은 외부 유입수요와 지역별 호재에 따라 시황이 엇갈릴 수 있다. 교통이 불편한 나 홀로 택지개발지구, 미분양이 많은 곳 등도 요주의 지역이다.

GDP 증가율, 금리, 자산별 가격상승률



주 : 각 년도 기간평균 기준 | 자료: 한국은행, KB국민은행,부동산114

상업용부동산 시장에서는 핵심자산과 비용절감형 상품 인기 예감

상업용부동산은 시장별로 시황이 엇갈릴 수 있다. 기업경기와 내수소비 부진으로 오피스와 상가시장의 임대시황은 다소 악화될 수 있다. 임대수요가 탄탄하고 환금성이 좋은 우량 자산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오피스 대비 저렴하게 사무실로 임대 가능한 지식산업센터가 최근 부각되고 있듯, 비용절감이 가능한 상품이 향후 인기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허리띠를 졸라맬 필요가 커지기 때문이다.

금리 향방이 중요

상업용부동산 투자수요는 금리 향방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금융상품 대비 초과수익이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이 큰 인기를 끌었다. 부동산 선호가 강한 국내 시장 특성을 볼 때, 투자수요가 급격하기 위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금리가 오를 경우 상업용부동산의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투자수요가 일부 감소할 수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일정, 국내 거시경제 동향과 가계부채 대응방향 등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는 연말과 내년 초까지는 금리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체 거래만 해도 다양한 금융 수수료 면제!

새출발 KEB하나은행이 드리는 통합기념 선물

행복 Knowhow 주거래 우대 통장

대한민국 1등 은행
KEB 하나은행

국내은행 중 자산규모 1위(2019년 6월 금융감독원 자료 기준)

행복한 내일을 설계하는 평생 주거래 우대 통장

- 1 전자금융수수료 무제한 면제!**
급여, 연금, 카드대금, 아파트관리비, 공과금 중 17개 항목만 이체해도 전자금융수수료 무제한 면제!
- 2 통합 행복Together 적금 금리우대!**
급여 또는 연금 이체 시 통합 행복Together 적금 금리 우대 (연 0.1% / 1년제에 한함)

*이 예금은 예금지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또는 KEB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영업점으로 문의바랍니다. 본법감시인 심사결과 2015-광고-3054(2015.09.30)

올해의 글로벌 시니어 이슈 5

12월은 한 해를 정리하는 시기다. 2016년 올해 화제가 된 글로벌 시니어 이슈를 되짚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일본의 시니어 창업 열풍, 덴마크 로봇복지, 영올드 시대의 공부하는 시니어들,

최고 속도의 고령화 한국, 스페인의 외모 가꾸는 시니어까지 글로벌 시니어 이슈 베스트 5를 뽑았다.

일본의 시니어는 '창업 중'

최근 일본에서는 '숙련 창업(노년 창업)'이 늘고 있다. 일본은 50대 중년을 포함한 고령자 창업을 '숙련 기업(起業)'으로 일컫는다. 일본 창업자 중 60세 이상이 32%를 차지해 연령대별 창업자 순위에서 젊은 세대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밝혔다. 전체 창업자 중 60세 이상 비율은 30년 전보다 4배 증가했다.

최근 노년 창업이 증가한 원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노년 창업이 늘어난 데는 건강한 노년층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도 탄탄한 기초체력이 창업동기, 도전의욕으로까지 이어져 창업에 뛰어들 수 있었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인 65세 전후 단카이 세대가 회사 생활 중간에 버블을 경험하면서 일에 대한 가치관이 변했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다. 당시 회사 부도와 실직자의 현실을 경험하면서 회사를 평생직장으로 여기는 의식이 낮아졌고, 이 때문에 재고용·정년연장 대신에 회사 밖에서 자신만의 성공지도를 그리려는 창업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01

최고 속도의 고령화 한국

지난 3월 28일 미국 국립보건연구소(NIH)가 '늙어가는 세계 2015 보고서(141개국 대상)'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5.9%로 일본(40.1%)에 이어 세계 2위로 예상했다. 고령화 속도에서는 유럽의 선진국들은 100여 년 이상 걸리는 반면 한국은 한 세대 정도 걸렸다. 2050년 인간의 세계 평균 기대수명은 76.2세, 일본과 싱가포르의 기대 수명이 91.6세로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국가로 전망됐다.

이 보고서에서 주목할 것은 초고령화 속도에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율은 2018년 14%가 되고, 2027년 21%가 될 전망이다. 2000년 7%에서 두 배로 늘어나는데 18년, 다시 세 배로 늘어나는데 9년이 더 걸린다는 이야기다. 모두 27년에 불과해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증가 속도다.

04

덴마크, 로봇 복지에 주목하다

유럽의 복지 선진국인 덴마크에 '로봇'이 눈길을 끌고 있다. 바로 80세 이상 고령자의 요양서비스를 로봇이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덴마크는 고령자인구의 자택생활을 돕기 위해 현지 지방정부들이 앞다투어, 주방용 로봇, 로봇 청소기 등을 구매하고 나섰다.

덴마크 노인들은 대부분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덴마크는 홀로 지내는 노인을 도울 수 있는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발달하고 있다. 특히 노인을 돕는 로봇이 큰 인기다. Berlingske Nationalt에 따르면 최근 노인을 도울 수 있는 로봇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덴마크 지방정부도 노인들에게 보급하기 위한 로봇 구매를 확대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2015년에는 약 90%에 달하는 덴마크 지방정부가 로봇 청소기 구매 의사를 밝혔다. 한편 정부 차원에서 관련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로봇 구매 확대 수요를 견인하기도 했다.

02

영올드의 시대

'영 올드(Young-old)'는 은퇴 후에도 배우고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며 배우는 것이야말로 인생 후반기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덩달아 '영 올드'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등장하고 있다.

프랑스는 전문직 은퇴자들의 자발적인 조직과 클럽활동의 활성화, 그리고 노노(老老)상생 프로그램이 노년의 교육을 담당한다.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평생교육의 진원지이며, 대학과 노인단체 등의 유기적 연계와 제도적 시스템을 통해 성공적이고 생산적인 노년기를 펼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노인교육을 위한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의 시니어커뮤니티들이 대학교의 평생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UBRC(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와 일본의 칼리지링크(College-Link)형 시니어 커뮤니티이다. 대학교가 사업주체가 되어 은퇴자 커뮤니티를 직접 운영하거나 시니어커뮤니티가 대학교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은퇴자커뮤니티와 대학교 모두 시너지효과를 얻고 그 혜택도 시니어들에게 돌아가는 구조이다.

03

외모 가꾸는 시니어들

스페인 시니어들의 꾸준한 외모 가꾸기가 화제다. 스페인 시니어들은 최근 5년 사이 80대 이상 여성의 수술 상담이 100% 증가했다고 한다. 이처럼 스페인 노인들은 젊을 때부터 꾸준한 외모 가꾸기로 삶의 에너지를 더하고 있다.

스페인의 국민들은 물론 노인들도 비교적 사교적인 성향이 두드러진다. 주로 대인과의 접촉을 좋아하며, 외모에 대한 관심이 다른 유럽국가에 대해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또 스페인 노년층은 높은 수준의 연금을 바탕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편이다. 이러한 연금 수령을 통한 안정적인 수입 기반을 바탕으로 스페인의 시니어들은 고가 화장품 사기를 꺼리지 않는다. 실제로 노년층의 피부미용 시술 상담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스페인 성형협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80대 이상 여성의 수술 상담이 100% 증가했다고 한다. 이처럼 스페인 노인들은 젊을 때부터 노인이 되어서도 꾸준한 외모 가꾸기로 노년이 되어서도 사회적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편이다.

05



가족 모두 행복한 낭만여행, 크루즈 여행

아침에 눈을 떠보면 베네치아, 다음 날 눈을 떠보면 크로아티아! 아침마다 환상적인 풍경을 만날 수 있다는 크루즈 여행. 지중해, 미국, 북유럽 등 일상의 단조로움을 벗어나 드넓은 바다 위에서의 신나는 여행을 즐겨보자.

은퇴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크루즈 여행'을 해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다. 크루즈 여행은 무조건 비싸다는 편견은 금물, 저렴하게 즐기는 캐주얼 크루즈도 있으니 버킷리스트에 꼭 적어두길 바란다.

최근에는 환갑이나 칠순 때 자녀뿐 아니라 손자, 손녀들과 크루즈여행을 떠나는 시니어들도 늘고 있다. 또한 배 안에는 의료진과 웬만한 엑스레이 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갑작스러운 위급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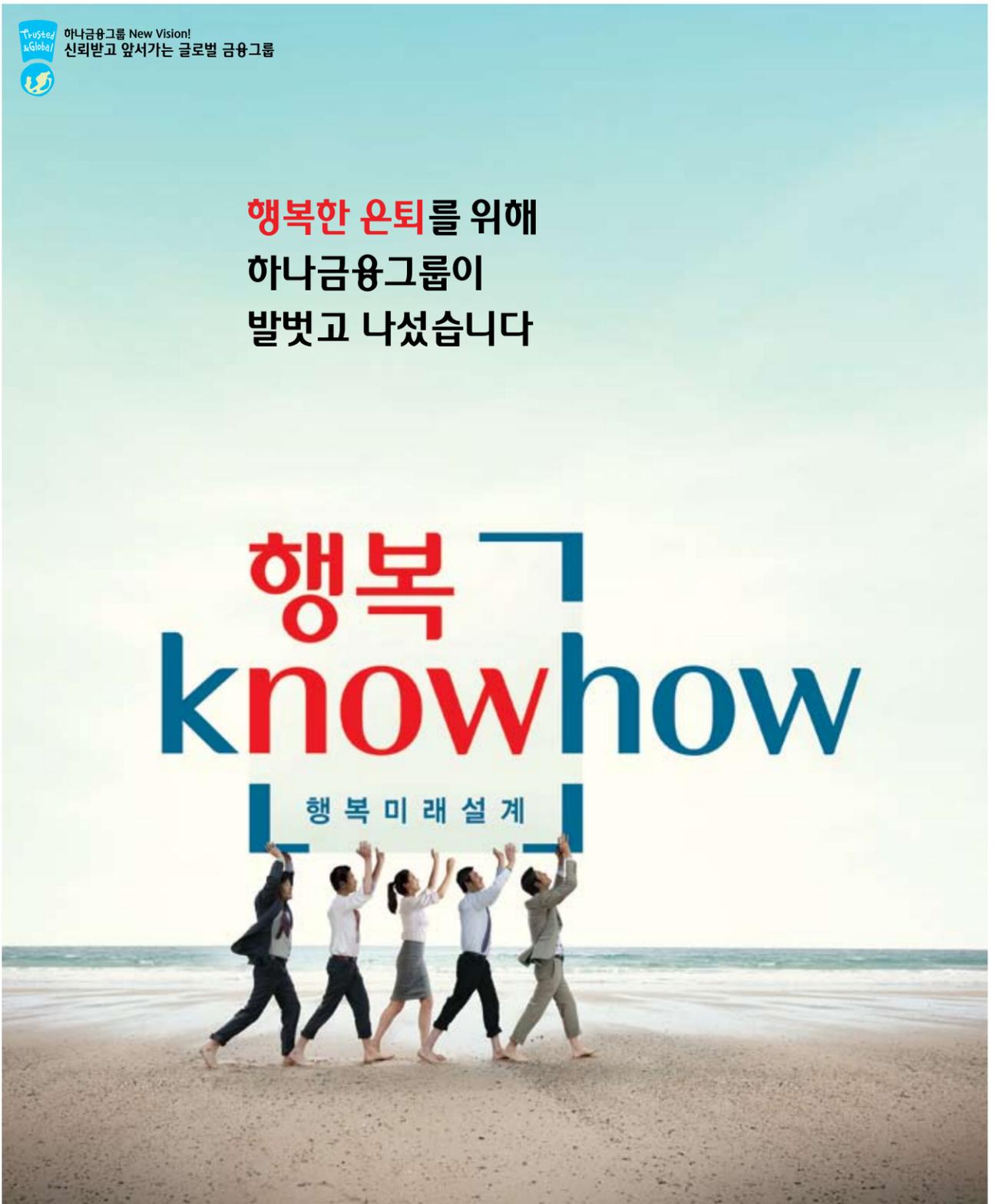
크루즈여행에 대한 오해 중 하나는 장기간 바다 위에서 여행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저녁에 기항지를 출발해 밤시간을 해상에서 보내고, 다음날 아침 기항지에 내려 관광을 즐기는 패턴이 이어진다. 크루즈는 한마디로 5성급 호텔인 셈이다. 어떤 크루즈는 사유지인 섬에 내려 그들만의 공간에서 색다른 체험도 즐길 수 있다.

시니어들에게 특히 더 좋은 점은 도시에서 도시 간 이동시간도 거의 없는 셈이라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덜하다는 점이다. 어린 아이들도 체력적인 부담이 없어 편안히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크루즈 안에는 수영장, 헬스클럽, 아이스링크, 영화관 등의 시설뿐 아니라 댄스교실, 미술교실, 줌라인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어 지루할 틈이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크루즈 여행은 계절에 따라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카리브해 1~12월, 알래스카 5~9월, 지중해, 에게해 4~11월, 하와이 1~12월, 북유럽, 노르웨이 5~9월, 남미 11~3월, 아시아 1~12월, 중동 12~5월을 보통 추천한다.



- 1 크루즈 여행 전문 여행사를 선택해 상담을 받아보자. 하지만 여행사 말만 듣기보다는 크고 작은 크루즈 박람회도 많이 있으므로 참여해 정보를 얻어보자.
- 2 가격 부담은 있지만 7일 이상 여행할 경우 발코니를 추천한다.
- 3 손자, 손녀나 어린이가 있다면 바다 위의 디즈니랜드인 디즈니크루즈를 고려해보자.
- 4 가격은 100만원 대부터 시작해 2,000만원에 달하는 상품도 있다. 동남아 크루즈는 100만원 대부터 시작하는 상품도 많다. 일본이나, 지중해, 중동 등은 200만~50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즐길 수 있다.
- 5 인터넷 카페를 통해 정보를 얻도록 하자. 추천하고 싶은 카페는 네이버의 '배상속 크루즈' 카페로 가장 많은 회원과 정보를 갖고 있다.

크루즈 여행을 준비하려면?



하나금융그룹의 은퇴설계 통합 솔루션 행복 knowhow

- 통합 솔루션으로 완벽하게**
 - 어디서나 준비된 상품을 만날 수 있고, 동일한 은퇴설계 서비스를 제공
- 전문 시스템으로 탄탄하게**
 - 은퇴설계 전용 인프라 구축
 - 일대일 맞춤 컨설팅 전문인력 제도 운영
-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로 든든하게**
 - 은퇴 전용 상품 운영
 - 비재무 설계 서비스 통합제공

※하나금융그룹 관계사들은 상호 채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하나은행, 외환은행, 하나대투증권,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 하나증권은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기관이며, 하나 S&K는 부보금융기관이 아닙니다. ※금융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가입 전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투자 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4-06798호 2014.10.13~2015.09.28)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7-3 하나금융투자빌딩 12층 | TEL. 02-2002-2200 | FAX. 02-2002-2610

KEB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생명, 하나카드